

## 영어유모아번역연구의 추이와 번역원칙

주 권 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모아는 익살과 웃음섞인 말로 사업과 생활의 깊은 뜻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는 특이한 매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유모아로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유모아는 현실과 생활의 진리를 반영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4권 397페이지)

유모아는 익살과 웃음이 섞인 말로 사업과 생활의 깊은 뜻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는 특이한 매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널리 쓰이고있다.

일반적으로 유모아라고 하면 가벼운 풍자나 해학이 섞인 우스개말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유모아는 익살과 가벼운 웃음이 섞인 말이나 언어유희적방법으로 자기가 의도하는 어용적의미와 언어적의미를 충돌시켜 사업과 생활의 깊은 뜻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언어표현이다. 익살과 웃음속에 깊은 뜻을 담고 웃음속에서 사람들에게 사업과 생활의 깊은 뜻을 알려준다는데 바로 유모아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인간생활에서 유모아가 노는 역할이 커감에 따라 유모아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도 커지고있다. 그러나 유모아는 그자체가 내재하고있는 언어적특성, 원어와 역어의 문화적특성에서의 차이로 하여 그 번역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이로부터 유모아번역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켜야 할 분야로 되고있으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지금까지 유모아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문제는 유모아의 번역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일부 유모아들의 문자적의미가 번역과정에 류실되는것으로 하여 유모아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수 없는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유모아의 번역가능성에는 언어적문제와 문화적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일부 유모아의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프랑스학자 디오토는 《지식인들을 위한 유모아: 유모아를 번역할수 있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명시적의미는 대충이라도 다른 언어로 번역할수 있지만 암시적의미는 그렇게 할수 없다. 암시적의미는 번역하기 힘들며 번역하는 도중에 그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다.》 데브라는 유모아의 번역은 언어의 형식이 매력으로 되고있는 시를 번역하는것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유모아번역자는 세가지의 유모아 즉 언어적유모아, 문화적유모아, 일반유모아에 알맞는 번역방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유모아번역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유모아의 번역가능성이란 항시적으로 변하는 번역기준에 따르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서 유모아번역의 가능성을 주장하고있다.

디.닐센은 《원문보다 더 훌륭히 성공한 유모아번역》이라는 책에서 《유모아는 총체적으로 볼 때 번역할수 있다. 더우기 번역문은 원문보다 더 훌륭해야 한다.》라고 썼다.

유모아번역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학자들이 동음이의어를 리용한 말소리겹침법(pun)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실례로 델라바스티라는 《겹침법과 번역에 관한 논문》에서 말소리겹침을 리용한 유모아의 번역에서 언어내적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그 방법들이 각이한 사람들이 설정한 번역기준을 항시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언어학적특성에 기초한 유모아는 그의 번역가능성에 기초하여 크게 두가지로 즉 번역할수 있는 유모아와 번역할수 없는 유모아로 구분되였다. 하나는 유모아의 요소들이 어음론적 및 서사적표시와 관계되는 유모아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것과 관계되는 유모아이다. 전자는 번역할수 없고 후자는 번역할수 있다고 하였다.

번역할수 있는 유모아와 번역할수 없는 유모아를 식별하기 위한 첫 시도를 한것은 헨리 버그슨이였다. 그는 유모아를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유모아와 언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유모아로 구분하면서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유모아는 번역할수 있지만 언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유모아는 번역할수 없다고 하였다.

최근 유모아번역연구에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효과의 증가에 더 많은 주의를 돌리고 있다.

뉴버트와 슈리브는 《등가란 본문의 표면적의미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다. 등가는 본문의 효과의 관계 즉 교체적가치의 관계이다.》라고 하였으며 로리안은 언어적유모아가 엄밀한 형식등가의 범위내에서는 번역될수 없어도 번역자의 능력에 따라 기능적으로는 번역될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유모아의 번역에서 기능등가에 대한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영어유모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근년간 진행된 연구에서도 유모아번역의 기능등가의 측면이 강조되고있다.

유모아의 번역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였지만 유모아번역을 위한 구체적인 통일적인 번역리론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유모아번역리론을 체계화하자면 유모아의 분류로부터 번역원칙과 구체적인 번역수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유모아는 번역의 측면에서 론리적유모아와 언어적유모아로 분류할수 있다.

론리적유모아는 말재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정황에서의 론리적불일치성을 리용하여 만들어지는 유모아이다. 특정한 정황에서 예견치 않았던 말은 유모아의 핵심부분으로서 그것 자체는 유모아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표현하는 론리적인 불일치로부터 웃음이 나오는것이다.

례: “Have you got any children?” Mr.Parker asked the young woman who was sitting opposite him in the train.

Woman: “Yes, one son.”

Mr. Parker: “Indeed? Does he smoke?”

Woman: “No, he has never touched even a cigarette.”

Mr. Parker: “Very good, madam. Tobacco is a poison. Does he come home late at night?”

Woman: “Never. He always go to bed immediately after dinner.”

Mr. Parker: “He is a model young man. How old is he?”

Woman: “Seven months today.”

(《자식들이 있습니까?》라고 파커씨는 기차칸에서 마주 앉아있는 젊은 부인에게 물었다.

녀인: 《예, 아들 한명이 있습니다.》

파커씨: 《아, 그런가요? 그 애가 담배를 피웁니까?》

녀인: 《아니요, 그 애는 담배 한가치도 손에 대본적이 없어요.》

파커씨: 《아주 좋군요, 부인. 담배는 해롭습니다. 애가 밤늦게 집에 오는 일이 있는가요?》

녀인: 《천만예요, 그 애는 저녁을 먹은 후에는 인차 잠을 자곤 한답니다.》

파커씨: 《아들이 모범청년이군요. 몇살입니까?》

녀인: 《오늘이 만 7달째예요.》)

우의 실례유모아에서 핵심을 이루는 문장은 마지막말인 《오늘이 만 7달째예요.》로서 이것은 앞에서 나온 모든 말들과의 논리적불일치를 이루는 말이다.

대부분의 논리적유모아는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번역에서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나라 말을 하든 사람들의 논리적사고는 기본적으로 같기때문이다. 앞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영어의 모든 문장들을 그대로 옮겨놓았지만 번역문에서도 유모아의 효과가 그대로 전달된다.

논리적유모아는 해당 정황에 대한 리해에서의 일치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번역에서 문제로 될것이 하나도 없다. 일부 경우 정황에 대한 리해에서 원문을 읽는 독자와 번역문을 읽는 독자사이에 정황에 대한 리해에서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시말하여 문화적차이로 하여 같은 정황에 대하여 역문을 읽는 독자가 다르게 리해하는 경우에 번역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

언어적유모아는 언어적요소들을 리용하여 만들어지는 유모아이다. 언어적유모아에서는 말소리, 철자, 어휘, 문장구조 등을 리용하여 유모아적효과를 만들어낸다.

례: Conductor: “Your fare?”

Guest: “Yes, I am fair. Thank you.”

우의 실례에서 차장이 손님에게 요금을 내라고 하는 말인 《Your fare》(당신의 요금)는 《You're fair?》(당신은 공정한 사람입니까?)라는 말과 발음이 같다. 여기서 손님은 두번째 말로 리해하고 그에 맞게 《예, 나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유모아적으로 대답하였다.

여기서는 유모아의 수단으로 되는것이 류사한 말소리이다. 언어적유모아는 유모아의 소재로 쓰이는것이 언어 그자체인것으로 하여 역어에 같은 언어적소재가 없는 경우의 번역에서는 유모아적효과를 달성하기가 힘들게 된다. 우의 실례에서 번역문이 제대로 되자면 우리 말에 차장이 물어보는 말과 손님이 대답하는 말이 원어의 의미와 같으면서 동시에 발음상에서도 류사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말은 찾을수가 없다. 번역자들에게 커다란 골치거리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이 부류의 유모아인것이다.

유모아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번역자들과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언어적 유모아를 어떻게 번역할것인가 하는것이다.

유모아번역에 관한 문제는 본질상 유모아번역을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번역원칙들을 본다면 번역의 어느 측면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내용등가의 원칙, 형식등가의 원칙, 기능등가의 원칙, 목적등가의 원칙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내용등가의 원칙은 표현방식에는 관계없이 원문의 기본적인 사상내용만 전달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형식등가의 원칙은 원문의 언어표현구조들을 역문에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형식의 일치를 통하여 원문의 이야기내용을 정밀하게 감수하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기능등가의 원칙에서는 원문에 있는 표현수단들의 구조형식적특성들을 옮기는것이 아니라 표현수단들과 표현수법들이 나타내는 언어적기능들을 등가적으로 역문에 옮겨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목적등가의 원칙에서는 원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형식과 내용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번역을 하는 원칙이다.

유모아번역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능등가와 목적등가의 원칙이다.

본문을 번역할 때 원문이 수행하는 기능, 원문이 내세운 목적을 번역문에 옮겨놓는것이 바로 번역자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유모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유모아는 웃음을 자아낸다는 공통적인 기능이 있으나 웃음속에서 달성하려는 여러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수 있다. 이 기능과 목적은 일부 경우 웃음 그자체보다 더 중요한것으로 될수 있다. 웃음속에 인간생활의 깊은 뜻을 깨우쳐주는것을 목적으로 할수도 있으며 광고문에서와 같이 독자에게 해당하는 상품을 사도록 추기는 기능을 수행할수도 있다. 이 경우 유모아의 1차적기능으로 되는것은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기능, 설득기능이다.

이로부터 유모아의 번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유모아의 1차적기능을 달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유모아번역에서 기능등가와 목적등가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유모아의 번역에서는 다음으로 의미등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미등가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원문의 의미가 역문을 읽는 독자에게 의미적으로 접수될수 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글에서 표현되는 교제적 및 문화적의미를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

의미등가는 기능등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이다. 의미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능등가, 목적등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나 의미등가를 실현하는것은 언어적요인들과 함께 문화적요인들로 하여 언제나 번역에서 힘든 문제로 제기된다.

언어적유모아번역에서 형식등가는 거의나 실현하기 힘든 문제이다. 그것은 언어적유모아의 수단으로 되는 말소리와 철자, 문법, 어휘, 문장 등이 언어마다 다르기때문이다.

이러한 원칙들의 관계를 본다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것은 기능등가, 목적등가의 원칙이고 그것이 달성되는 한에서 의미등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형식등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기능등가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의미등가와 형식등가를 실현하는것은 큰 의의가 없다. 생활의 리치를 깨우쳐주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유모아의 번역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기능에만 치중하면서 1차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번역문은 의의가 없다. 그러므로 유

모아의 번역에서는 해당 유모아의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을 살리는것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만족되는 한에서 의미적등가나 형식적등가도 실현하여야 한다.

부쉬가 미국대통령으로 있던 때 미국의 어느 한 주의 학교에서 류혈적인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신문에 다음과 같은 유모아적제목의 보도가 실렸다.

례: There was a piece of news in a newspaper. The headline of this piece of news was “Murderer-In-Chief Bush to Visit Town of Massacre”

(신문에 한편의 보도가 실렸다. 이 보도의 제목은 《살인두목 부쉬의 살인도시 방문 예견》이었다.)

우의 실례원문에서 유모아요소는 Murderer-In-Chief라는 합침말에 의하여 산생된다. 영어에서 -in-chief는 《...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직업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와 함께 결합하여 editor-in-chief(책임주필), commander-in-chief(사령관)에서와 같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직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실례에서 쓴 murderer-in-chief는 영어규칙에 따르면 Murderer(살인자)가 직업이 아니므로 -in-chief와 결합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례에서는 murderer를 -in-chief와 함께 씌으로써 부쉬가 살인두목이라는 사실을 유모아적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유모아의 1차적인 기능은 부쉬를 살인두목으로 락인하는 지시적기능이다. murderer-in-chief의 기본뜻을 살려 《살인두목》으로 번역한다면 이 유모아의 1차적인 기능을 달성되지만 《살인두목》이라는 우리 말 단어에 아무런 우스운것이 없기때문에 유모아적기능은 달성되지 못한다. 이러한 유모아의 번역에서는 유모아적효과가 류실되어도 원문의 1차적목적은 달성하는것이 기본이다.

이상의 원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되는것은 유모아적요소가 언어 그 자체에서 산생될 때이다. 전형적인 경우는 겹침법 즉 같거나 류사한 말소리를 리용하여 창조되는 언어적유모아이다.

겹침법은 동음이의어와 동형이의어와 같이 같거나 류사한 말소리, 단어를 리용하여 단어나 단어결합이 2중문맥조건에서 두개의 의미로 동시에 실현되거나 류사한 발음이나 철자를 가진 다른 단어 및 단어결합을 련상시킴으로써 유모아적효과를 나타낸다.

일부 사람들은 겹침법을 리용한 유모아의 번역이 완전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기능등가와 목적등가의 견지에서 볼 때 번역이 완전불가능한것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원문의 번역에 맞는 옳은 번역수법을 적용하는것이다.

이러한 수법의 하나가 유모아의 수단으로 되는 어휘적요소들을 역어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바꾸는것이다.

례: A woman asked a man, who looked smart and interesting. “What flowers does everybody have?” The man answered immediately. “Tulips.”

(번역1 어느 한 녀인이 매우 단정하고 재미있어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있는 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물음을 듣자마자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두 입술이지요.》)

우의 실례원문에서 웃음을 자아내는것은 남자의 대답인 《Tulips》이다. 매 음절을 따로따로 발음하면 two lips(두 입술)로 된다. 이러한 련상이 있는것으로 하여 유모아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말로 옮길 때에는 어음론적류사성에 기초한 련상이 없어지므로 유

모아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원문의 단어를 번역문에서 부분적으로 바꾸면 이 유모아의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번역 2 어느 한 녀인이 매우 단정하고 재미있어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있는 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물음을 듣자마자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웃음꽃이지요.》)

이처럼 tulips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꾸어 넣어 번역함으로써 유모아적인 효과를 달성하였다.

레 A: What makes a road broad?

B: The letter “B”.

(번역 1

ㄱ: 무엇이 도로를 넓게 만드는가?

ㄴ: 그것은 글자 B이다.)

이 번역문을 읽으면 유모아적효과는 물론이고 그어떤 론리적연관성이나 의미도 전혀 안겨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 유모아가 기초하고있는 영어단어 road와 broad의 말소리구성에서의 유사성이 없어졌기때문이다. road와 broad의 말소리구성에서의 차이는 broad에 글자 b하나가 더 들어있는것이다. 첫 문장에서 road와 broad를 의미적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소리구성단위로만 본다면 《road를 broad로 만드는데는 무엇인가?》 하는 의미로 리해할수도 있다. 그렇다면 레문의 대답인 《그것은 글자 B이다.》가 론리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 말로 번역할 때에는 이 두 단어의 말소리구성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말소리에서의 유사성이 없어지며 거기서부터 산생되던 우스운 감이 없어지고만다.

(번역 2

ㄱ: 밥을 가지고 김밥을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지?

ㄴ: 밥에 《김》자 하나를 더하면 되지요 뭐.)

여기서도 단어 자체는 원문과 완전히 달라졌지만 유모아에 쓰인 단어쌍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리용되었으며 똑같은 효과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번역이 성공한것으로 된다. 여기서 원어의 단어쌍이 역어에서 의미적으로 다른 단어쌍으로 바뀐것은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재치있는 기지로 사람들을 웃기려는 원어의 유모아적목적이 달성되었기때문이다.

영어유모아를 훌륭히 번역하기 위하여서는 깊은 언어학적 및 문화적지식이 필요하며 동시에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수 있는 열정, 발견 및 착상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외국어유모아번역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 그것을 외국어교수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을 풍부한 외국어지식을 소유한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에 영어유모아, 번역원칙